

전쟁이 나도 그림은 판다... 한국 최장수 '화랑미술제'



8일 코엑스 개막... 닷새간 미술 큰 장

봄바람이 마냥 부드럽지 않았다. 몇 해에 걸쳐 그랬다. 바람 사이에 모래가 서걱거렸다고 할까. 해마다 따뜻한 기운이 퍼질 무렵 '그림 판다'라는 소식을 알리는 '화랑미술제'가 열린다. 과연 모래 박힌 그 바람이 올해에는 방향을 바꿀 수 있으려나.

올 한 해 미술시장이 화랑미술제를 신호탄 삼아 본격적으로 문을 연다. '2026 화랑미술제'는 8일부터 12일까지 닷새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C&D홀에 큰 장을 연다. 8일 하루를 VIP 프리뷰로 개방하고 9~12일 나흘간은 일반 관람객을 맞는다. 총 169개 화랑·갤러리가 예열을 마쳤다. 참여하는 화랑·갤러리 수로는 이제껏 중 최대다.

대한민국 최초의 아트페어이자 최장수 미술장터인 화랑미술제는 오래도록 한 해 미술시장의 분위기를 떠보고 가늠하기도 하는 척도로 여겨져 왔다. 첫봄의 첫 장이기도 했고, 여느 아트페어에 비해 시장을 채감하기에 용이하기도 했다. 한국화랑협회 소속 회원사인 화랑·갤러리만 꾸리는 만큼 해외시장, 해외갤러리 등 여타 변수에 영향을 덜 받기도 해서다. 게다가 참여하는 화랑·갤러리는 규모에 상관없이 동일한 조건의 공간(6×6m 부스)에서 전시하고 거래하도록 규정한 게 특징이다. 계급장 떼고 오로지 작가와 작품만으로 승부를 내야 한다고 할까.

특히 올해 화랑미술제에는 뜻깊은 의미 하나가 더 실린다. 창립 50주년을 맞은 한국화랑협회의 역사를 읽는 거다. 1976년 동산방·명동·양지·조선·현대화랑 등 5개 화랑 대표들이 '건전한 미술시장 만들기'를 목표로 만든 단체가 바로 한국화랑협회다. 그렇게 발을 댄 한국화랑협회는 1979년 비로소 공식적인 행보를 세상에 알렸는데, '제1회 한국화랑협회전'(화랑미술제 전신)이 그거였다. "미술작품도 한데 모아놓고 팔고 살 수 있구나"를 국내에 처음 알린 화랑미술제는 올해로 44회째다.

국내 미술시장이 바다를 치면서 휘청거렸던 지난 몇 해를 봄날의 '모래바람'에 비유했지만, 사실 객관적인 조건은 올해야말로 최악이다. 중



역대 최대 규모 169개 화랑·갤러리 집결 동일 조건 부스서 오직 작품으로만 승부

정상화부터 김윤신까지 거장 대형 화화에 젊은 작가 비중 확대로 시장지속성 피해 중등발 불확실성 거중 속 올해 시장 가늠

동에서 타진 전쟁 탓에 늘 임박처럼 말해온 '불확실성'은 더더욱 치솟는 중이니까. 환율이 나 주가, 뭐 하나 안정적이지 않다. 게다가 전통적으로 말이다. 전쟁통에는 가지고 있는 그림도 내다 팔지 않았던가.

갤러리스트 안목까지 내거는 '솔로부스' 주목

하지만 전쟁이 나도 그림시장은 열린다. 가나아트, 갤러리현대, 국제갤러리, 학고재, PKM 갤러리 등 국내 미술시장 선두주자들은 물론 갤러리바론, 갤러리조은, 공근혜갤러리, 금산 갤러리, 리안갤러리, 박여숙화랑, 아트사이드 갤러리, 아틀리에아키, 우순갤러리, 이화익갤러리, 표갤러리 등 국내 미술계의 허리를 담당하고 있는 갤러리들은 빠짐없이 이름을 올렸다. 여기에 노화랑, 동산방화랑, 맥화랑, 미광화랑, 선화랑, 수화랑, 예화랑, 조선화랑, 조현화랑, 진화랑 등 '화랑'이란 명칭 그대로 한국화랑협회와 역사를 함께해 온 갤러리들은 올해 유독 관심을 끈다.

갤러리현대도 지난 1월 타계한 정상화의 작

'2026 화랑미술제'가 8일 VIP 프리뷰를 시작으로 12일까지 닷새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다. 국제갤러리가 출품하는 김윤신의 회화 '영혼의 빛 2025-49'(2025·위)와 가나아트가 솔로부스로 꾸리는 문형태의 작품 중 '에펠탑'(2023·아래). 가운데는 지난해 '2025 화랑미술제' 전경이다.

품을 내고 거장의 큰 그림자를 더듬는다. 국제갤러리는 원로작가 김윤신과 중진 박진아, 신진 김세아 등의 회화작품을 어울린다. 선화랑은 캔버스에 석고를 얹고 깎아내리는 작업을 하는 우병운의 작품을 꺼내놓고, 공근혜갤러리는 이태 전 '화랑미술제 신진작가 중인 특별전'에서 대상을 받은 전박의 신작을 앞세운다. 갤러리조은은 흙으로 물방울을 빚어 순간의 영원을 붙드는 조원재의 작업을 본격적으로 소개하고, 노화랑은 자페상 발달장애를 가진 작가들의 작품으로 부스를 꾸린다. '평범한 작업실' 소속 정민우·홍영호·최병철이 나선다.

시장에 무엇을 꺼내놓는가는 장사꾼의 마음이지만 그이가 오로지 하나에만 올인 했다면 불거리는 하나 이상이 된다. 장사꾼의 안목까지 내걸리니까 말이다. 아트페어 속의 아트페어라 할 '솔로부스' 섹션은 그런 의미다. 지난해 화랑미술제에서 처음 시도해 눈길·발길 다 잡은 '솔로부스'가 올해는 아예 중앙으로 진출했다. 가장 많은 인파가 오고 갈 메인 동선에 밀집시켜 배치하는데, 19개의 화랑·갤러리가 나서 저마다의 작가를 단독으로 내건다.

가나아트는 동화적이고 천진한 익살 뒤에 비감 어린 세상을 비추는 문형태의 회화작품으로만 부스를 채운다. PKM갤러리는 무디고 무심하게 사람을 빚어온 정현의 브론즈 조각작품, 학고재갤러리는 자연에서 받은 영감을 옷칠로 되돌리는 채림의 회화작품을 쌓아낸다. 박여숙화랑은 패트릭 휴즈, 아트사이드갤러리는 권순진의 작업을 꺼낸다. 결과물은 다르지만 두 작가 모두의 도하지 않은 착시효과를 만들고 '현실과 허구의 경계' '작품과 작품이 아닌 세상'에 대해 묻고 답해 왔다.

물론 화랑·갤러리마다 편차가 있긴 하다. 그럼에도 화랑미술제의 색은 점점 더 '젊은 작가'로 짙어지는 듯하다. 더 이상 '신진작가'를

입 밖으로 꺼내 강조하지 않아도 말이다. 불과 2~3년 전만 해도 한국화랑협회는 "신진작가에게는 미술계에 진출하는 발판을 마련하는 기회, 신규 컬렉터에게는 좀 더 쉬운 작품으로 미술시장에 입문하는 기회"가 될 거란 기대감을 일부러 내비치기도 했었다. 그렇다고 시장을 선도하는 대형작가들의 역할이 빠질 순 없겠지만, 국내에서 내로라하는 갤러리가 저마다 내건 신진작가들의 비중은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진 않고 있단 얘기다.

'젊은' '신진'... 화랑미술제 새로운 정체성

덕분에 7회차를 맞는 화랑미술제의 신진작가 발굴 프로그램인 '중인 특별전'이 덩달아 주목을 받는다. 작가 입장에서선 더할 나위 없는 등용문인 '중인 특별전'에 들기 위해 올해는 700여 명이 지원했다는 후문이다. 그중 10명의 작가(김수현, 박시월, 송다솔, 윤인선, 이수지, 이신아, 이진아, 정미정, 정진, 하성욱)를 이미 선발했고 이들의 작품은 한 데 모여 걸린다. 아트페어가 열리는 전시기간 중 관람객들의 현장투표를 받고 심사위원들의 심사를 거친 3명에게는 마지막 날 시상도 한다.

"한국미술 생태계의 흐름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플랫폼"이라며 화랑미술제의 의의를 다진 이석훈 한국화랑협회장은 50주년 한국화랑협회의 지향까지 아울러 "신진작가 발굴과 미술시장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모색하는 데 올해 행사의 의미가 특히 더하다"고 했다. 그 바탕이 된 지난한 반세기의 현장을 사진·도록·스캐프 등 아카이브 자료로 생생하게 내보이는 자리도 마련한다. 올해 화랑미술제에서만 볼 수 있을 '특별한 역사'다.

글·사진·오현주 문화전문기자 euanh@

조원재의 흙작업 '우리 안에 어디든 #001' (2026). 갤러리조은 부스에 놓인다.

이데일리문화대상 이 작품 양인모와 잘츠부르크 모차르테움



양인모와 잘츠부르크 모차르테움 오케스트라 공연. StudioGut 제공

개성과 화합이 빛어낸 세련된 '정찬' 같은 무대

바이올리니스트 양인모는 데뷔 이후 양감이나 강건함에 앞서 섬세함과 미감 넘치는 음색의 매력으로 팬들에게 어필했다. 2015년 파가니니 콩쿠르 우승에서 2022년 시벨리우스 콩쿠르 우승까지 그는 톤의 위엄과 볼륨을 서서히 키워가는 쪽으로 진화했지만, 유려한 소리의 결에서 가장 빛나는 그의 본질은 변화하지 않았다.

그 양인모와 잘츠부르크 모차르테움 오케스트라가 만났다. 지난달 17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열린 로베르토 곤잘레스-몬하스 지휘의 이 오케스트라와 양인모 협연의 콘서트는 어울리는 개성들의 조합으로 일찌감치 기대를 모았다.

바이올리니스트 출신인 곤잘레스-몬하스는 잘츠부르크 모차르테움 오케스트라를 직접 지휘하고 솔로까지 맡은 모차르트 바이올린 협주곡집을 최근 출반했다. 모차르트 유족들의 주도로 태어난 잘츠부르크 모차르테움 오케스트라는 현대 악기를 사용하면서도 21세기 들어 현악 파트의 비브라토를 절제한

바이올리니스트 양인모의 투명한 음색 지휘자 곤잘레스의 절제된 해석의 만남

'절충주의적' 모차르트 해석에 권위를 나타내 왔다. 첫 곡인 모차르트 극음악 '타모스'의 세 곡에서부터 이 악단의 선명한 음색은 뚜렷했다. 긴 음표에서도 비브라토는 제한적으로 사용해 투명한 현의 표정이 두드러졌고 각 음표 첫머리의 강세는 뽀뽀하듯도 희미하지도 않은 적절한 표정이었다.

곤잘레스-몬하스의 지휘는 필적에 비유한다면 달필이면서서도 해독이 쉬운 필적이었다. 지휘 포즈 자체가 유려하고 아름다웠다.

이날의 솔리스트 양인모가 무대에 올랐고 두 번째 곡인 베토벤의 바이올린협주곡이 시작됐다. 양인모의 섬세한 음색은 기대대로였다. 그는 전체적인 다이내믹을 여러 악구 위주로 가져갔지만, 감상의 귀는 금세 그 채도에 적응했다.

2악장에서는 특히 유리하고 같은 투명한 질감이 그의 활에서 뿜어 나왔다. 빠른 악장들에서 지휘자와 솔리스트가 순간적으로 서로 표정을 맞춰나갈 때의 호흡도 완벽했다. 청중들의 환호에 양인모는 유명한 '코렐리 주제에 의한 변주곡' 원 주제가 나오는 코렐리 '월(현악)의 기술'을 비롯한 세 곡의 앙코르로 응답했다. 후반부에 연주된 모차르트의 마지막 교향곡 '주피터'는 우주적이고 조형적으로 거대한 이 작품의 미학을 고해상도 화면으로 보여준 듯한 무대였다.

모든 부분에 허세나 과장이 없었지만 원전성에 대한 강박이나 물개성고도 거리가 멀었다. 악단과 협연자, 지휘자가 가진 서로의 분명한 개성이 궤적한 화합을 이루며 서로를 받쳐준, 소담하면서도 세련된 정찬과 같은 밤이었다.

유윤중 음악평론가



돈되는

상상을 뛰어넘는 상승과 급락을 반복하는 주식시장
· 역사적 고점을 연이어 경신하는 금값
· 기회를 잡기 위해 물러드는 공모주 시장
· 새로운 자산으로 자리 잡은 가상자산
· 규제와 정책 변화로 방향이 바뀐 부동산시장까지

2026 돈이 보이는 창

"앞으로 무엇에 투자해야 할까?" "내 자산은 안전한가?" "변동성의 시대 2026, 투자 방향과 전략은?"

SPECIAL 1 5대 은행 PB가 전망하는 2026 경제 & 재테크 전략

PART 1 금리 인하가 독목한 투자법

01. 예금_금리 인하가, 주가지수연동형 예금 & 고금리 특판예금
02. 금_다락같이 치솟는 금값, 골드바부터 ETF까지
03. 대출_각종 규제에 줄어드는 주택담보대출
04. 보험_세제 혜택 연금저축보험, 노후보장 보험까지
05. 카드_합리적 소비도 재테크, 실속! 효율! 특화!

SPECIAL 2 글로벌 투자 전문가가 밝히는 '변동성의 시대, 2026' 투자 기회와 전략

PART 2 자산을 늘리는 투자 기회와 전략

06. 고액 자산가 전용물은 옛날! 절세·수익을 쏙쏙, 채권 투자
07. 안정적인 고수익, 중위험·중수익 상품의 모든 것
08. 편안한 노후를 위한 연금 투자, 그 시작은?
09. '파볼' 중독 우려면 구조를 이해하라! 공모주 투자법 A~Z
10. 비트코인은 위험자산인가, 안전자산인가
11. 배당투자가 궁금해!
12. 중국, 변화 속 투자 기회와 전략

PART 3 내 집 마련부터 투자까지

13. '내 집 마련' 추월차선, 청약 활용법
14. 월세 받는 가장 빠른 방법 '리츠'
15. 세컨드홈 세계 특례, 투자 가치 있을까?
16. 절대 투자하지 말아야 할 부동산
17. 같은 듯 다른 정비사업, 알아야 돈 번다

온라인 서점 및 전국 대형 서점에서 구매 가능